

# 아미코젠 (092040)

## 의약품을 균주 발효로 만드는 시대 개막

### 7-ACA를 한번에 생산가능한 균주 개발

7-ACA(7-Aminocephalosporanic acid)라고 하는 물질은 세파게 항생제의 중간체로서 A. chrysogenum이라고 하는 균주로부터 생산되는 CPC(Cephalosporin C)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다. 기존 화학공정으로는 CPC로부터 7-ACA를 만들기까지 4단계 공정이 필요하지만 아미코젠은 2011년도 CX 효소 개발을 통해 한 단계로 공정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다. 이제 아미코젠은 DX1 발효법을 통해 균주가 바로 7-ACA를 생산할 수 있는 방식을 개발, 원가를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CX 효소를 사용하고 있는 공정은 모두 DX1 발효법으로 전환 가능, 향후 7-ACA를 생산하는 중국 공장들이 상당수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정을 스케일업하고 있는 단계로 향후 중국 제약사에 기술이전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 실적은 연결자회사 성장 기대

2017년 아미코젠의 연결 매출액은 약 737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6.8% 증가에 그쳤으며, 영업이익은 19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54.6% 감액되었다. 이것은 중국 환경규제 등의 요인으로 효소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기존 무형자산화 시켰던 R&D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역성장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연결 자회사들의 실적은 2018년도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2016년 중국의 강화된 환경규제로 조업도 손실이 발생했던 아미코젠차이나는 2017년도 정상화되어 2018년도에는 전년대비 약 20% 성장한 38,000만위안(한화 약 641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미코젠의 대표 헬스케어 브랜드인 K-뉴트라 사업부도 홈쇼핑, 대형마트, 면세점 등으로 유통채널을 확대, 올해에는 매출액 100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230%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제용 레진사업도 올해부터 본격화

레진은 바이오의약품 및 바이오시밀러 등의 단백질의약품 생산에 필수적인 분리도구로 글로벌사인 GE 헬스케어사가 전 세계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다. 아미코젠은 스웨덴의 바이오웍스(Bio-Works Technology AB)사와 공동기술 개발 및 사업 협력을 통해 이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이 중 항체의약품의 성장과 함께 주목받는 물질은 Protein A 레진으로 현재 아미코젠은 공장이 있는 진주에서 Protein A 레진 생산시설 건립이 완료되었으며, 올해 6월부터 Protein A가 생산될 예정이다. 초기에는 대학 및 연구소 위주로 납품될 예정이지만, GE 사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과 성능으로 향후 바이오의약품 생산 기업으로의 진출을 기대해 본다.

Update

**Not Rated**

CP(3월 21일): 68,300원

#### Key Data

KOSDAQ 지수 (pt)	885.55
52주 최고/최저(원)	68,300/29,850
시가총액(십억원)	655.4
시가총액비중(%)	0.23
발행주식수(천주)	9,595.8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00.6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5.4
17년 배당금(예상, 원)	0
17년 배당수익률(예상, %)	0.00
외국인지분율(%)	5.54
주요주주 지분율(%)	
신용철 외 1인	16.38
양재정 외 4인	8.61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40.0 122.5 76.4
상대	38.4 66.1 21.4

#### Consensus Data

	2017	2018
매출액(십억원)	N/A	N/A
영업이익(십억원)	N/A	N/A
순이익(십억원)	N/A	N/A
EPS(원)	N/A	N/A
BPS(원)	N/A	N/A

#### Stock Price



#### Financial Data

투자지표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매출액	십억원	0.0	0.0	27.3	32.5	69.0
영업이익	십억원	0.0	0.0	9.4	2.3	4.2
세전이익	십억원	0.0	0.0	9.4	3.1	2.5
순이익	십억원	0.0	0.0	7.6	2.1	1.6
EPS	원	0	0	876	232	172
증감률	%	N/A	N/A	N/A	(73.5)	(25.9)
PER	배	N/A	N/A	47.00	282.54	256.65
PBR	배	N/A	N/A	7.23	7.39	5.00
EV/EBITDA	배	N/A	N/A	32.16	132.01	46.56
ROE	%	N/A	N/A	30.41	3.13	1.94
BPS	원	0	0	5,694	8,874	8,813
DPS	원	0	0	120	100	0



Analyst 선민정  
02-3771-7785  
rssun@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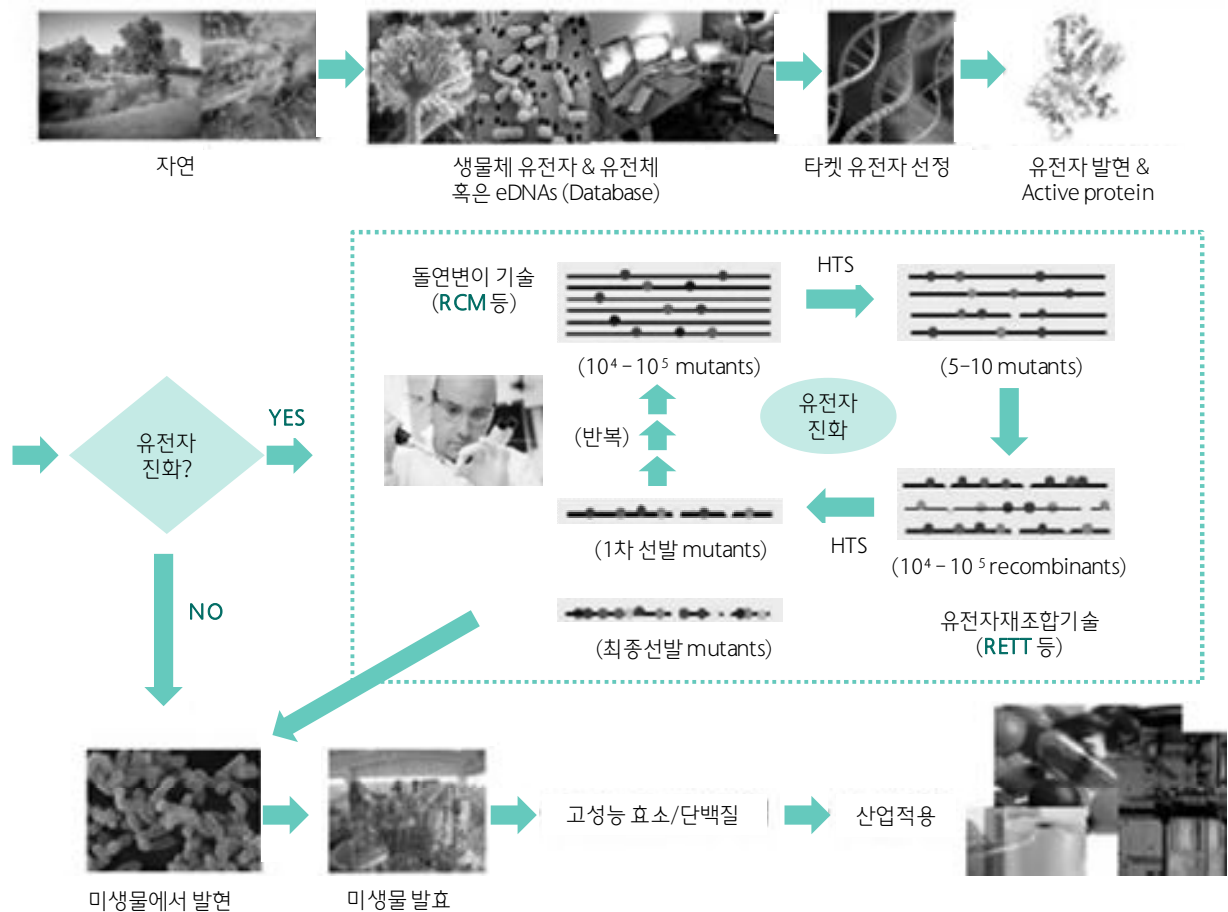
RA 박현옥  
02-3771-7606  
auseing@hanafn.com

### 계속 진화하는 아미코젠의 특수효소

아미코젠은 효소고정화 기술을 확보  
다양한 특수효소 파이프라인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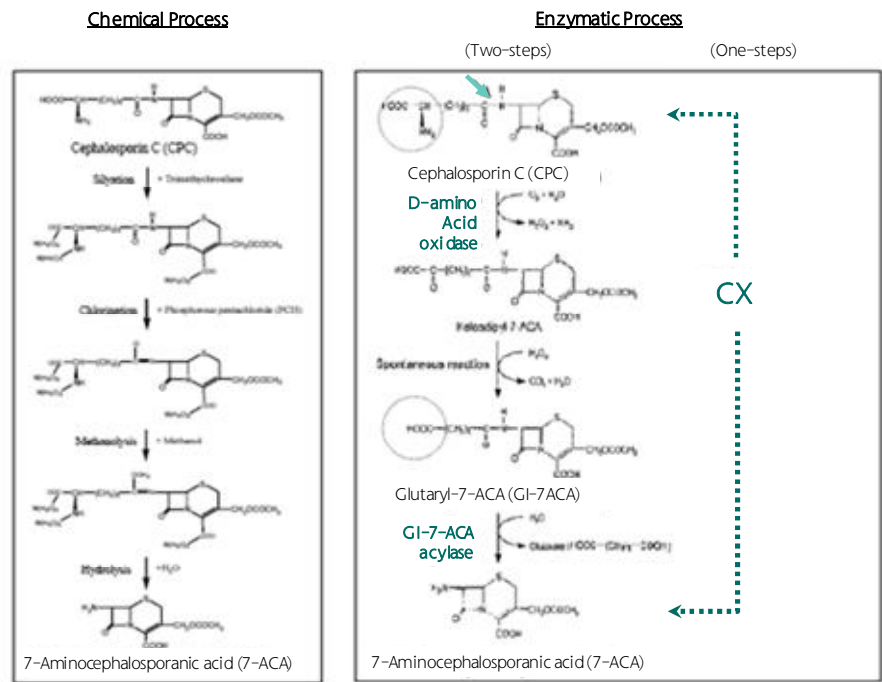
아미코젠은 유전자진화 기술을 기반으로 특수 목적에 부합하는 효소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특히 레진을 활용 효소고정화 기술에 대해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의약품의 API 나 중간체 등을 생산하기 위한 특수효소가 아미코젠의 주 비즈니스라 할 수 있다. 아미코젠의 현재까지의 캐쉬카우는 세파계 항생제의 중간체 물질인 7-ACA를 생산하는 CX 효소로 그림 2와 같이 CX 효소는 4단계 공정이 필요한 기존 화학공정을 CPC에서 바로 7-ACA를 직접 생산할 수 있게 하면서 원가를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다. 아래 표 1과 같이 아미코젠은 다양한 항생제 중간체 및 API에 대해 이와 같이 생산공정을 줄여줄 수 있는 특수효소를 다수 개발 또는 상용화하고 있다.

그림 1. 아미코젠의 유전자진화 기술



자료: 아미코젠, 하나금융투자

그림 2. 7-ACA를 생산하기 위한 화학공정 vs. 효소공정



자료: 아미코젠, 하나금융투자

표 1. 아미코젠의 특수효소 및 직접발효사업 파이프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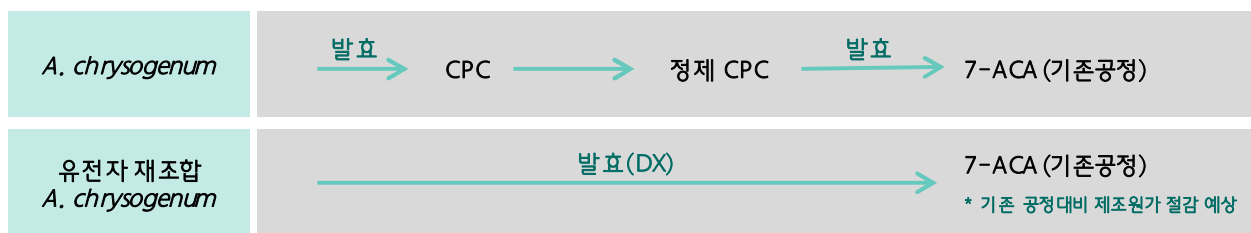
분류	효소코드	의약품 성분명	18	19	20	21	22	시장규모 (십억원)	Target 시장 (십억원)	비고	
제약용 특수효소	CX	7-ACA	제품 판매					401.8	16.7	- 중국 현지 영업력 강화	
	SP1	Amoxicillin	기술이전 및 중국 현지 생산 계획					753.4	15.1	- 국내/중국 특허 출원으로 경쟁력 강화	
	SP2	Cefaclor	제품판매	기술이전 및 중국 현지 생산 계획					31.8	0.7	
	SP3	Cephalexin	제품판매	기술이전 및 중국 현지 생산 계획					167.4	3.3	
	SP4	Cephadroxil	기술이전 및 중국 현지 생산 계획					20.1	0.4		
	SP6	6-APA, 7ADCA	연구개발/제품판매	기술이전 및 중국 현지 생산 계획					870.6	87.1	- 7-ADCA용으로 안정성 우수
	SP8	D-7-ACA	기술이전 및 중국 현지 생산 계획					97.1	1.0	- 경쟁제품 다수	
	SP9	Cephadrine	연구개발	제품 판매					112.2	2.3	- 국내/중국 특허 출원으로 경쟁력 강화
	HX	D-HPG	연구개발	제품 판매					200.9	8.0	- 국내/중국 특허 출원으로 경쟁력 강화 - One-pot 효소 개발
API & 직접발효 사업	DX1	7-ACA (발효법)	기술개발/상용화	업그레이드/상용화				401.8	현지업체와 협력 등을 통한 시장 50% 진입	- '17년 8월 PCT 특허출원 완료 - 중국 제약사에 기술이전 모색	
	DX2	D-7-ACA (발효법)	기술개발	기술개발/상용화	판매			97.1	20-30%	- 7-ACA 협력업체와 공동 진행 예정	
	DPX	6-APA (발효법)	기술개발 (상용화)				판매	870.6	미정	- L사와 기술개발 협의회 체결	
	SP5	Cefprozil (효소법)	허가					판매	41.9	10%	
	SC1	Cefotaxime (효소법)	기술개발					등록진행	137.3	미정	- 개발 및 허가의 난이도 높
	SC2	Cefazolin (효소법)	기술개발	허가등록			판매	97.1	미정	- 세계 최초	
	SC3	Ceftriaxone (효소법)	기술개발						40.2	미정	- 개발 및 허가의 난이도 높

자료: 아미코젠, 하나금융투자

**DX1 균주를 활용 직접 7-ACA 생산  
획기적인 원가절감 가능**

그러나 최근 아미코젠은 CPC를 생산하는 *A.chrysogenum* 곰팡이 균주의 유전자를 변형함으로써 CPC가 아닌 직접 7-ACA를 생산하는 균주인 DX1을 개발하였다. 즉 유전자가 변형된 *A.chrysogenum* 곰팡이 균주를 통해 CPC를 분리 정제할 필요없이 바로 7-ACA를 생산, 기존 CX 효소를 통한 공정을 보다 단순화 시킴으로써 제조원가를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아미코젠은 대량생산을 위한 스케일업 공정을 확립 중에 있으며 연내에 중국 제약사로의 기술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CX 효소를 활용하는 기업은 모두 큰 공정변화 없이 DX1 균주를 활용한 생산방식으로서의 전환이 가능함에 따라 현재 중국 내에 CX 효소 공정을 보유한 기업들의 수요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 DX1 기술개요



자료: 아미코젠, 하나금융투자

**7-ACA의 생산방식이  
기존 CX 효소방식에서 DX 균주방식  
으로 전환 가속화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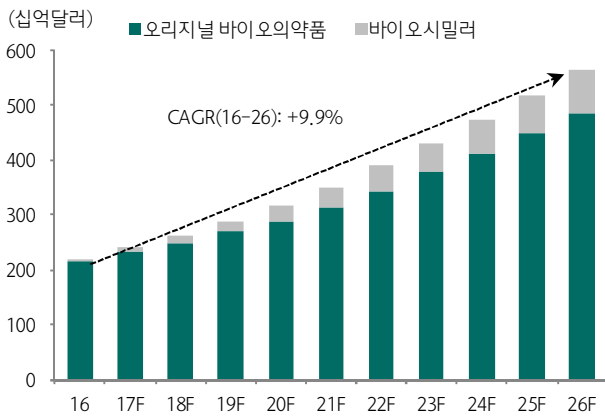
현재 중국 내에서 환경이슈로 인해 7-ACA 생산기업이 다수 폐업한 상태로 단지 4개의 기업만이 7-ACA를 생산, 공급부족으로 7-ACA의 가격이 상승하였다. 2011년도부터 시판되고 있는 CX 효소의 경우 중국 내 7-ACA 생산의 50%를 담당하고 있지만, 향후 환경규제 강화와 원가 절감 이슈로 DX1의 시장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 미래 성장동력 정제용 레진사업

바이오의약품 시장 성장에 따라 정제용 레진시장도 고성장 예상

바이오의약품 및 바이오시밀러 등과 같은 단백질 의약품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단백질 의약품 정제에 필수적인 레진사업 또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항체 의약품 시장은 연평균 약 11.8%로 고성장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정제용 레진시장도 연평균 약 7.2%로 성장 2018년 19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및 바이오시밀러 시장규모



자료: Frost&Sullivan, 하나금융투자

그림 5. Protein A 레진을 이용한 항체의약품 정제과정



자료: 아미코젠, 하나금융투자

### Bio-Works사와의 협력으로 정제용 Protein A 6월 출시

아미코젠은 스웨덴의 Bio-Works사와 협력하여 항체의약품 분리 정제에 필수적인 Protein A 레진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거대기업인 GE Healthcare사와 Merck Millipore사가 Protein A 시장을 양분하고 있어서 이들 기업들과의 경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나, GE Healthcare사의 가격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함으로써 단가를 줄이고자 하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기업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월 Protein A 판매를 위한 전국 영업 대리점을 구축하여 기업체 및 연구소 영업과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6월부터 Protein A 레진을 출시할 예정이다.

**실적인 헬스&뷰티 사업부와 자회사의 고성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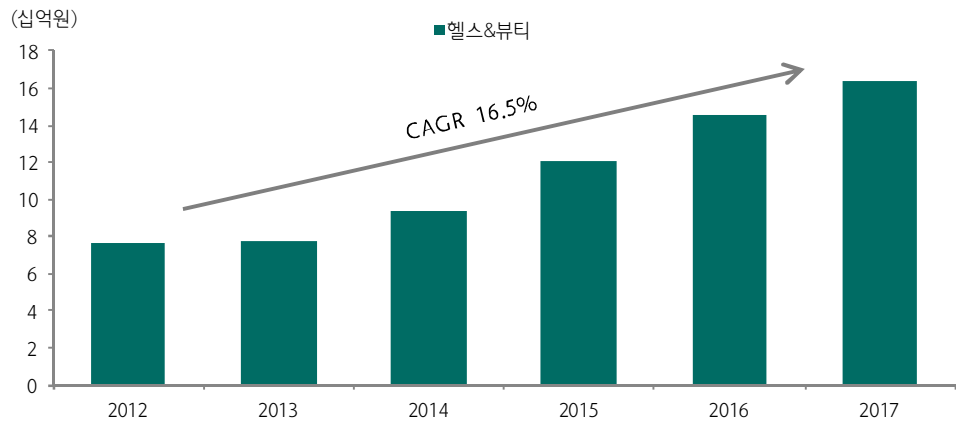
**헬스&뷰티 사업부의 연평균 성장률 16.5%**

아미코젠은 본업인 의약품용 특수효소 사업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바이오 신소재를 개발하여 판매함으로써 안정적인 현금을 창출하고 있다. 아미코젠이 개발 생산한 바이오신소재를 B2B로 판매하거나, 헬스케어 전문 브랜드인 케이뉴트라 및 자회사인 스킨메드(SKINMED)를 통해 B2C로 완제품을 판매하는 구조로 아미코젠의 헬스&뷰티 사업부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16.5%로 고성장하고 있다. 케이뉴트라는 아미코젠의 헬스케어 브랜드로 온라인, 홈쇼핑, 텔레마케팅, 백화점, 면세점, 드럭스토어 등으로 유통채널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약 100억원의 매출을 기록 전년 대비 228%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결자회사인 스킨메드는 전년대비 266% 성장 올해 58억원 매출 예상**

아미코젠은 2008년 피부과 교수 6명과 개업의 30여명이 창업한 스킨메드를 2015년 7월 인수함으로써 화장품 사업 및 유통채널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스킨메드는 2017년 약 16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올해는 전년대비 약 266% 성장한 58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그림 6. 아미코젠의 헬스&뷰티 사업 연간 매출**



자료: 아미코젠, 하나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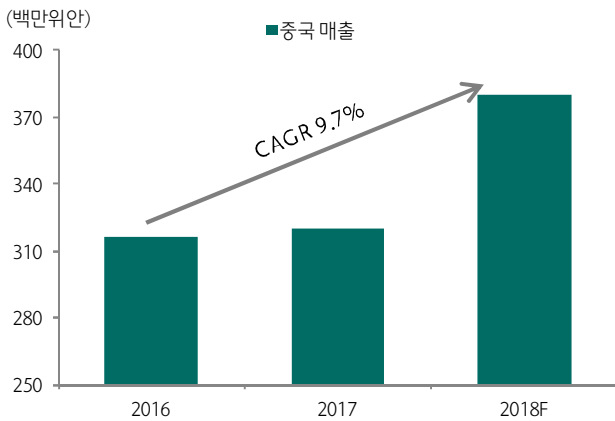
**아미코젠(중국) 바이오팜 유한회사 올해 3억 8,000만 위안 매출 예상**

2015년 9월 아미코젠이 인수한 아미코젠(중국) 바이오팜 유한회사는 2016년 환경이슈로 조업도 손실이 발생, 아미코젠의 영업이익률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나, 현재 조업은 정상화되고 있으며, 아미코젠의 바이오/의약사업의 중국기지로 API와, 동물의약품, 완제의약품, 분리정제용 레진 등을 생산하고 있다. 2018년도 매출액은 전년대비 약 19% 성장한 3억 8,000만 위안(한화로 약 641억원) 달성이 예상되며, 연내 중국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미코젠퍼시픽 올해 270억원 매출  
전년대비 183% 성장 가능 및 흑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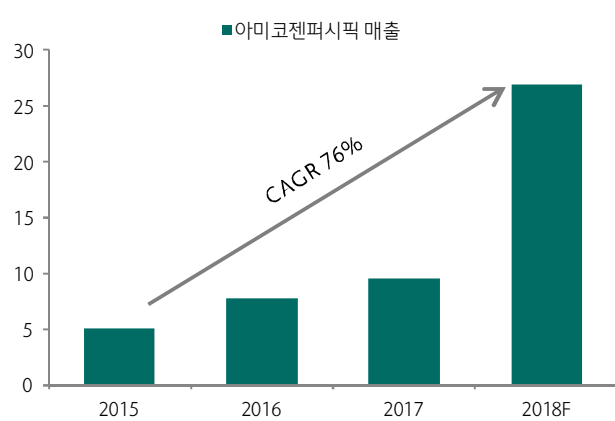
아미코젠의 계열사 및 관계사의 제품과 서비스의 네트워크 유통사인 아미코젠퍼시픽도 올해 전년대비 약 183.3% 성장한 270억원의 매출이 예상되며, 이익도 22억원으로 2015년 설립 이래 흑자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7. 아미코젠(중국) 바이오팜 유한회사 연간 매출



자료: 아미코젠, 하나금융투자

그림 8. 아미코젠퍼시픽 연간 매출



자료: 아미코젠, 하나금융투자

셀리드와 클리노믹스 2019년  
상장추진

이와 더불어 아미코젠은 미래 성장가치 창출을 위해 각각 2014년 6월 암치료 백신기술을 보유한 셀리드(지분율 30.37%)와 2015년 11월 액체생체검사 전문진단 바이오벤처인 클리노믹스(지분율 35.21%)에 투자하였으며, 두 회사 모두 2019년 상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표 2. 아미코젠 자회사 현황 및 2018년 예상 매출액

(단위: 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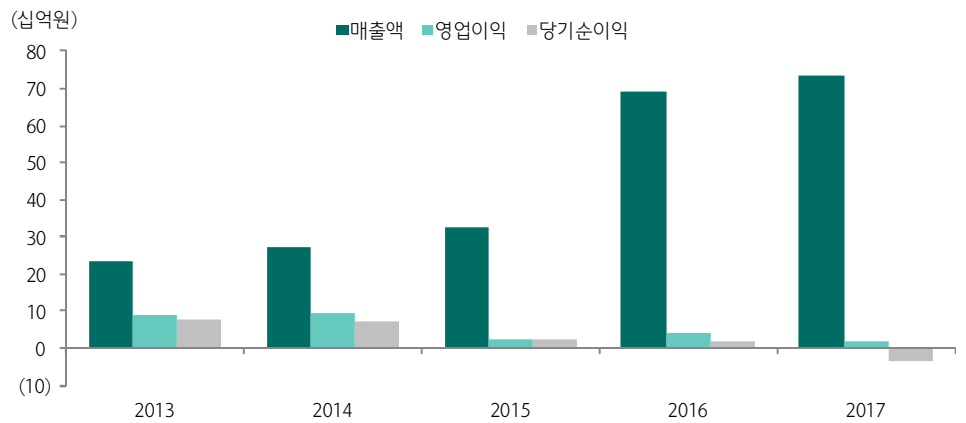
관계	일시	관계사 명	투자금 (단위: 백만원)	지분율	비 고	2017년 매출액	2018년 예상매출액
종속회사	2014. 04	아미코젠씨엔씨(주)	900	70%	키티ن/키티산, 농업바이오		
	2014. 01	바이오코젠(주)	2,100	100%	Vegan yogurt, 식물성 유산균		
	2015. 07	(주)스킨메드	2,538	37%	더마화장품, 피부질환치료제	1.6 (YoY +66.0%)	5.8 (YoY +265.6%)
	2015. 08	(주)아미코젠퍼시픽	4,000	72%	제품과 서비스 네트워크 유통	9.5 (YoY +24.1%)	27.0 (YoY +183.3%)
	2015. 09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	32,126	55%	Green API, 의약/바이오, 정제 레진	54.0 (YoY +1.3%)	64.1 (YoY +18.6%)
투자회사	2014. 06	(주)셀리드	1,812	30%	BVAC 항암면역백신/세포치료제		
	2014. 04	Labmaster Oy	359	10%	C-ECL 면역진단, POCT		
	2015. 11	(주)클리노믹스	1,000	35%	CTC/ctDNA, 암진단/유전체 분석		
	2017. 05	Bio Works Technologies AB	2,635	10%	단백질 정제용 아가로즈 레진		
	2015. 12	(주)제일그린사업	500		미생물농약 (작물보호제)		
	2015. 12	(주)펠자임	350		사료용 효소, 극한효소		

자료: 아미코젠, 하나금융투자

자회사들의 높은 성장률로 2018년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아미코젠은 주요 캐쉬카우인 CX 특수효소의 매출 감소와 자산화했었던 R&D 비용을 털어내면서 매출액은 전년대비 6.8% 증가에 그친 737억원,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54.6% 감소한 19억원을 기록하였다. CX 특수효소의 판매부진은 중국 내 항생제 원료 생산기업들이 CX 특수효소의 재고가 많았으며, 경쟁기업들의 등장으로 부진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에는 DX1 균주로의 전환으로 본업인 특수효소의 성장이 예상되며, 자회사들의 높은 성장률로 2017년 바닥을 찍고 올해에는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 2018년 아미코젠의 실적을 기대해 본다.

그림 6. 아미코젠 연도별 실적



자료: 아미코젠, 하나금융투자



추정 재무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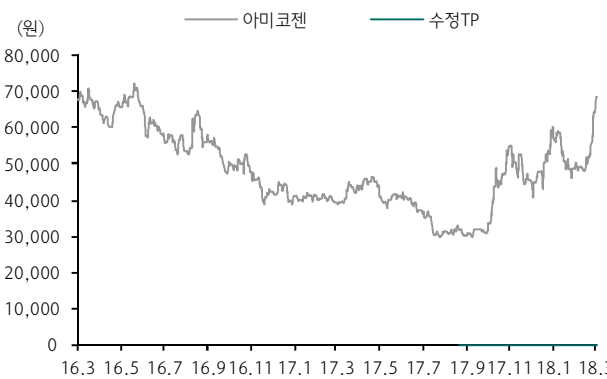
손익계산서	(단위: 십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b>매출액</b>	<b>0.0</b>	<b>0.0</b>	<b>27.3</b>	<b>32.5</b>	<b>69.0</b>
매출원가	0.0	0.0	13.3	20.5	45.2
매출총이익	0.0	0.0	14.0	12.0	23.8
판매비	0.0	0.0	4.6	9.6	19.6
<b>영업이익</b>	<b>0.0</b>	<b>0.0</b>	<b>9.4</b>	<b>2.3</b>	<b>4.2</b>
금융손익	0.0	0.0	(0.2)	(0.2)	(0.8)
중속/관계기업손익	0.0	0.0	0.0	(0.2)	(0.9)
기타영업외손익	0.0	0.0	0.2	1.1	0.1
<b>세전이익</b>	<b>0.0</b>	<b>0.0</b>	<b>9.4</b>	<b>3.1</b>	<b>2.5</b>
법인세	0.0	0.0	1.9	0.5	0.6
계속사업이익	0.0	0.0	7.5	2.5	1.9
중단사업이익	0.0	0.0	0.0	0.0	0.0
<b>당기순이익</b>	<b>0.0</b>	<b>0.0</b>	<b>7.5</b>	<b>2.5</b>	<b>1.9</b>
비지배주주지분 손이익	0.0	0.0	(0.1)	0.5	0.3
<b>지배주주순이익</b>	<b>0.0</b>	<b>0.0</b>	<b>7.6</b>	<b>2.1</b>	<b>1.6</b>
지배주주지분포괄이익	0.0	0.0	7.1	1.0	1.4
NOPAT	N/A	N/A	7.5	1.9	3.2
EBITDA	0.0	0.0	10.7	4.8	9.5
<b>성장성(%)</b>					
매출액증가율	N/A	N/A	N/A	19.0	112.3
NOPAT증가율	N/A	N/A	N/A	(74.7)	68.4
EBITDA증가율	N/A	N/A	N/A	(55.1)	97.9
영업이익증가율	N/A	N/A	N/A	(75.5)	82.6
(지배주주)순이익증가율	N/A	N/A	N/A	(72.4)	(23.8)
EPS증가율	N/A	N/A	N/A	(73.5)	(25.9)
<b>수익성(%)</b>					
매출총이익률	N/A	N/A	51.3	36.9	34.5
EBITDA이익률	N/A	N/A	39.2	14.8	13.8
영업이익률	N/A	N/A	34.4	7.1	6.1
계속사업이익률	N/A	N/A	27.5	7.7	2.8
<b>투자지표</b>					
	2012	2013	2014	2015	2016
<b>주당지표(원)</b>					
EPS	0	0	876	232	172
BPS	0	0	5,694	8,874	8,813
CFPS	0	0	1,344	666	1,045
EBITDAPS	0	0	1,241	534	1,022
SPS	0	0	3,164	3,647	7,454
DPS	0	0	120	100	0
<b>주기지표(배)</b>					
PER	N/A	N/A	47.0	282.5	256.6
PBR	N/A	N/A	7.2	7.4	5.0
PCFR	N/A	N/A	30.6	98.4	42.2
EV/EBITDA	N/A	N/A	32.2	132.0	46.6
PSR	N/A	N/A	13.0	18.0	5.9
<b>재무비율(%)</b>					
ROE	N/A	N/A	30.4	3.1	1.9
ROA	N/A	N/A	27.8	1.9	1.0
ROIC	N/A	N/A	44.4	2.9	3.0
부채비율	N/A	N/A	8.7	45.0	36.6
순부채비율	N/A	N/A	(27.3)	(4.5)	7.8
이자보상배율(배)	N/A	N/A	377.9	6.8	4.5

자료: 하나금융투자

대차대조표	(단위: 십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b>유동자산</b>	<b>0.0</b>	<b>0.0</b>	<b>30.4</b>	<b>81.5</b>	<b>55.1</b>
금융자산	0.0	0.0	13.7	30.4	14.3
현금성자산	0.0	0.0	8.6	19.7	13.2
매출채권 등	0.0	0.0	13.3	21.1	20.0
재고자산	0.0	0.0	2.7	28.7	18.7
기타유동자산	0.0	0.0	0.7	1.3	2.1
<b>비유동자산</b>	<b>0.0</b>	<b>0.0</b>	<b>23.9</b>	<b>78.3</b>	<b>91.3</b>
투자자산	0.0	0.0	3.9	5.6	6.4
금융자산	0.0	0.0	0.4	1.1	2.0
유형자산	0.0	0.0	17.2	53.9	63.2
무형자산	<b>0.0</b>	<b>0.0</b>	<b>2.8</b>	<b>17.6</b>	<b>20.0</b>
기타비유동자산	<b>0.0</b>	<b>0.0</b>	<b>0.0</b>	<b>1.2</b>	<b>1.7</b>
<b>자산총계</b>	<b>0.0</b>	<b>0.0</b>	<b>54.4</b>	<b>159.8</b>	<b>146.3</b>
<b>유동부채</b>	<b>0.0</b>	<b>0.0</b>	<b>4.0</b>	<b>46.6</b>	<b>35.5</b>
금융부채	0.0	0.0	0.1	23.6	19.4
매입채무 등	0.0	0.0	2.8	22.6	14.4
기타유동부채	0.0	0.0	1.1	0.4	1.7
<b>비유동부채</b>	<b>0.0</b>	<b>0.0</b>	<b>0.3</b>	<b>3.0</b>	<b>3.6</b>
금융부채	<b>0.0</b>	<b>0.0</b>	<b>0.0</b>	<b>1.9</b>	<b>3.3</b>
기타비유동부채	0.0	0.0	0.3	1.1	0.3
<b>부채총계</b>	<b>0.0</b>	<b>0.0</b>	<b>4.3</b>	<b>49.6</b>	<b>39.2</b>
<b>지배주주지분</b>	<b>0.0</b>	<b>0.0</b>	<b>49.7</b>	<b>82.1</b>	<b>81.6</b>
자본금	<b>0.0</b>	<b>0.0</b>	<b>4.3</b>	<b>4.6</b>	<b>4.6</b>
자본잉여금	0.0	0.0	21.3	54.2	54.2
자본조정	0.0	0.0	0.7	0.0	(1.1)
기타포괄이익누계액	0.0	0.0	0.0	(0.9)	(1.5)
이익잉여금	0.0	0.0	23.4	24.3	25.4
<b>비지배주주지분</b>	<b>0.0</b>	<b>0.0</b>	<b>0.3</b>	<b>28.1</b>	<b>25.6</b>
<b>자본총계</b>	<b>0.0</b>	<b>0.0</b>	<b>50.0</b>	<b>110.2</b>	<b>107.2</b>
순금융부채	0.0	0.0	(13.7)	(4.9)	8.4
<b>현금흐름표</b>					
	2012	2013	2014	2015	2016
<b>영업활동 현금흐름</b>	<b>0.0</b>	<b>0.0</b>	<b>4.4</b>	<b>12.3</b>	<b>11.3</b>
당기순이익	0.0	0.0	7.5	2.5	1.9
조정	0.0	0.0	2.7	1.8	5.9
감가상각비	0.0	0.0	1.3	2.4	5.3
외환거래손익	0.0	0.0	0.3	0.0	0.5
지분법손익	0.0	0.0	0.0	0.0	0.9
기타	0.0	0.0	1.1	(0.6)	(0.8)
영업활동 자산부채 변동	0.0	0.0	(5.8)	8.0	3.5
<b>투자활동 현금흐름</b>	<b>0.0</b>	<b>0.0</b>	<b>(0.5)</b>	<b>(29.1)</b>	<b>(15.8)</b>
투자자산감소(증가)	0.0	0.0	(3.9)	(1.7)	(0.9)
유형자산감소(증가)	0.0	0.0	(4.5)	(5.6)	(12.7)
기타	0.0	0.0	7.9	(21.8)	(2.2)
<b>재무활동 현금흐름</b>	<b>0.0</b>	<b>0.0</b>	<b>0.9</b>	<b>27.8</b>	<b>(1.9)</b>
금융부채증가(감소)	0.0	0.0	0.1	25.5	(2.9)
자본증가(감소)	0.0	0.0	25.6	33.1	0.0
기타재무활동	0.0	0.0	(24.8)	(29.7)	1.9
배당지급	0.0	0.0	0.0	(1.1)	(0.9)
<b>현금의 증감</b>	<b>0.0</b>	<b>0.0</b>	<b>4.8</b>	<b>11.0</b>	<b>(6.4)</b>
Unlevered CFO	0.0	0.0	11.6	5.9	9.7
Free Cash Flow	0.0	0.0	(0.2)	6.5	(2.5)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아미코젠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17.9.11	Not Rated			-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 의견 비율공시

- 투자 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매도)\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0.9%	8.5%	0.6%	100.0%

\* 기준일: 2018년 3월 20일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선민정)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18년 3월 22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선민정)는 2018년 3월 22일 현재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